

38장 - 예수 우리 왕이여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425장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2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4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담당

9/29(화)	9/30(수)	10/1(목)	10/2(금)	10/3(토)	10/5(월)
맹정운 안수집사	김익환 안수집사	김충경 안수집사	심재윤1 안수집사	손수량 안수집사	이창수1 안수집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엡4:3, 롬12:11)

2026년 9월 28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나형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8장 다 같 이
기 도 임찬섭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1:32-40 인 도 자
찬 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벽찬양대
설 교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나형빈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42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열왕기상 1장 32절-40절 >

32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35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3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37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8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39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40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6년 9월 28일(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도니아처럼 내 뜻과 힘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왕 되신 주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새문안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셔서 맡겨진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헌당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새생명 기쁨나눔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온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자신의 뜻과 유익보다 국민을 섬기며 맡겨진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세계 곳곳에 긍휼을 베푸사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2026년 새문안교회 여름성경학교·수련회 및 선교 일정 >

부서		날짜
국내선교	청년2부 부여지역	10/8(목)~10(토)